

사람의 참가치----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인간됨의 표징일것이다.그런데 그전에 꼭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바르고 진실되게 사랑할줄 아는 바탕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이다. 그것이 가족사랑이든지 이웃사랑이든지간에 말이다. 이런사랑은 타인을 사랑할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아픔이나 상처보다는 참기쁨과 행복,보람을 느끼게 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할때는 타인을 사랑하는것이 고통을 동반한 자기희생이 되며 그안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게된다. 자기폐쇄, 자기학대까지도 말이다. 자신을 사랑하는것 즉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참 가치를 아는 바탕위의 사랑은 자신의 삶도 타인의 삶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게 함으로 인한 인생의 만족감 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혹 영적이든지 말이다. 1년이 넘도록 전화로 타주에 계신 분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 절망적이고 비참한 기분으로 내게 전화를 하신, 그것은 다름아닌 자신의 성장한 아들의 삶 때문이었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그 청년은 삶이 참 처절하고 고달프다. 동성애 파트너와 뉴저지에서 동거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먼 타주에 있는 부모님과의 사이도 상당히 힘들다. 직장에서 겨우 벌어들이는 돈으로 대학 학자금 용자금을 갚아나가고 방값과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늘 간당간당 생활비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다 예상외의 지출이라도 생기면 영락없이 먼곳에 있는 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는 형편에 그나마 마약문제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했다. 겨우 초등학생 과외공부지도를 해나가며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는 아들에 대해 기가막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소연을 한다. 설상가상 서른이 다되가는 큰딸은 한술 더떠서 “그건 그아이의 자유이고 선택이다.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란다. 전화를 통해 아들의 성장과정과 부모와의 관계성, 그리고 성향, 성격등을 분석해볼때 아이는 자신이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 매우 자신이 없고 그내면에는 부모의 관계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크고작은 많은 이슈들이 있는 불안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불안한 자아의 공통점은

자존감, 자긍심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불안한 자아를 가진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접근해오는 이 동성애자는 의지하고픈 뿌리칠수 없는 거대한 유혹이 된것이다. 술, 마약, 인터넷 중독등과 같이 이러한 증상들의 공통점도 낮은자존감의 불안한 자아인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이와같은 증상이 있음을 유스앤드 웨밀리 포커스의 상담케이스를 살펴보면 알수있다. 그러기에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자세와, 그리고 그들이 자기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수 있도록 내면의 아픔들을 치료해주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오래참음으로 아들을 받아주고 대해주는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성이 많이 향상되어졌고 이것으로 인해 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수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준비가 서서히 마련되고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참가치를 알게 된다면 자신의 사랑에는, 서로의 삶을 인격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으로 발전, 성장시키는 관계성을 포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와 가정으로 돌아올수 있게 될것이다.